홍준표 "배신자" vs 한동훈 "국민 배신 안 해" 난타전

경선 B조 1차 토론회서 '찬탄' 韓에 집중포화
나경원·이철우 "내란몰이 탄핵선동 할 짓이냐"
韓 "생머리냐" 질문받자 "유치하다" 맞받아쳐

국민의힘 대선 경선 B조 1차 토론회에서 '찬탄파(탄핵 찬성파)'인 한동훈 예비 후보에게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한 후보는 토론회 이튿날에도 특히 홍준표 예비 후보를 겨냥해 비난하는 등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홍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미지 정치가 성공한 사람은 내 기억에는 딱 한 사람뿐이다. 한국 사회에서 오세훈 시장 외에 (이미지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처음 정치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미지 정치에만 몰두하면 오래가지 못한다. 곧 들통이 난다"고 한 후보에게 충고했다.

한 후보는 같은 날 YTN라디오에서 "저는 다른 분들하고 달리 탈당 경험도 없고 제가 특활비(특수활동비)를 집에 갖다 준 경험도 없지 않냐"며 "그런 게 (정치에)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탈당' 등 언급을 두고 홍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했다. 홍 후보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에서 배제되자 무소속 출마 후 당선돼 2021년 복당했다.

홍준표·한동훈 후보 두 사람은 20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1차 경선 조별 토론회(B조)에서 거센 설전을 벌였다. 한 후보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했다고 해도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봤고 그래서 앞장서서 막았다"며 "12.3 비상계엄을 경미한 과오라고 생각하는 건 넓은 의미에서 계엄을 옹호한 것"이라고 '반탄파(탄핵 반대파)'에게 포문을 열었다.

홍 후보는 "(계엄에) 반대했지만 탄핵은 반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자진하야 기회를 주자고 했다"고 맞받았다. 또 "(비상계엄은)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 2시간 해프닝이었다. (자진 하야 등은)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12명 중 10명이 같은 생각이었다"고 강조했다.

나경원·이철우 예비 후보도 한 후보를 몰아붙였다. 나 후보는 "왜 대선 후보 경선에 윤 전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나. 한 후보가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이 결국 (조기대선 등) 이 지경을 만들었다"며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 후보가)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했다'면서 사실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했다. 또 "(한 후보는) 보수 통합을 위해 대통령 후보를 그만두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도 "한 후보가 그럴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우리 당 후보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나도 국민을 위해 이 상황에서 내가 꼭 필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수했다.

홍 후보는 한 후보의 '이미지 정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홍 후보는 "오늘 오기 전에 (청년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이거 꼭 질문해달라고 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다"며 "키도 크신데 뭐 하러 키높이 구두를 신나"고 물었다. 한 후보는 "(질문 요청자가) 청년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질문 하는 것 보면"이라고 맞받았다. 홍 후보는 "생머리냐, 보정속옷 입었냐는 질문도 유치해서 안 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유치하다"고 받아쳤다. 홍 후보는 한 후보를 '배신자'로 지칭하기도 했다. 홍 후보는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며 한 후보를 압박했다. 한 후보는 "저는 국민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 계엄을 저지했다"고 주장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洪 "연금공단 개혁해야"
外人 실업급여 검토 시사

홍준표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예비 후보가 연금 개혁을 약속했다. 또한 실업급여 누수 방지와 함께 외국인 지급 조건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CAMP 무대홍'에서 열린 복지 부문 비전발표회에서 홍 후보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연금 개혁'을 강조하며 새 정부 출범 즉시 '연금 개혁추진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루어진 모수개혁에 대해 "기금 고갈 시점을 일시 늦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한 그는 인구 고령화나 경제성장률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자동 안전장치' 도입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늦출 것을 표명했다.

또한 연금운용수익률 개선에 관한 질문에 "자금 운용하는 사람을 새로 뽑겠다"며 '선거 공신 낙하산 인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개혁을 주장했으며 "정부공공기관의 이전은 구성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공단 이전 여부에 대해 일축했다. 아울러 홍 후보는 부정수급 사례가 이어지는 실업급여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앞서 경제 부문에서 발표한 '최저임금제 외국인 차등적용'과 같이 실업급여 또한 차등 지급할 것이냐는 질문에 재검토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5000만 단일민족'이라고 그래왔으나 최근 다민족 국가가 되어간다. 일률적으로 차등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한국인들이 피해가 보는 경우도 생긴다"며 모든 경우를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욱 기자 twlee@skyedaily.com

김문수 "청년 일자리가 곧 미래"

경북대서 연금개혁·일자리 문제 청년 토크쇼
"기업 감세 혜택 주면 공무원 숫자 줄이겠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예비 후보는 20일 경북대를 찾아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국민연금 개혁과 일자리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 고민을 듣고 답하는 토크쇼를 진행했다.

김문수(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는 20일 경북대를 찾아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국민연금 개혁과 일자리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 고민을 듣고 답하는 토크쇼를 진행했다. 경북일보TV 유튜브 캡처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힌 한 청년은 "기존 국민연금 부담액 9%도 부담됐는데 이제 13%로 인상된다고 하니 막막하다.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런지도 불확실하다"고 말하며 김 후보에게 국민연금 상승에 대한 견해를 질문했다.

김 후보는 "국민연금개혁위원회는 반드시 청년세대별 대표가 참여해야 된다"며 운을 뗀 뒤 "이번에 한 연금 개혁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청년들이 배제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되면 즉시 국민연금 2차 개혁에 착수하고 청년을 세대별 인구비례로 계산해 개혁위원회에 참여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세대별 인구비례를 전체 인구 10명 중에 20대가 10%면 1명, 30대가 20%면 2명 등의 방식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개혁위원회는 반드시 청년세대별 대표가 참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1층 국민연금·2층 퇴직연금·3층 개인연금이라는 3층 연금 구조를 마련해야 노후가 편해진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공채가 많아지면 학생들이 조금 일찍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김 후보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자격증도 다섯 개씩 있어도 취업이 안 된다"며 "공채 제도를 부활하는 대기업은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각종 정부 지원 시책 가점, ESG평가 가점을 주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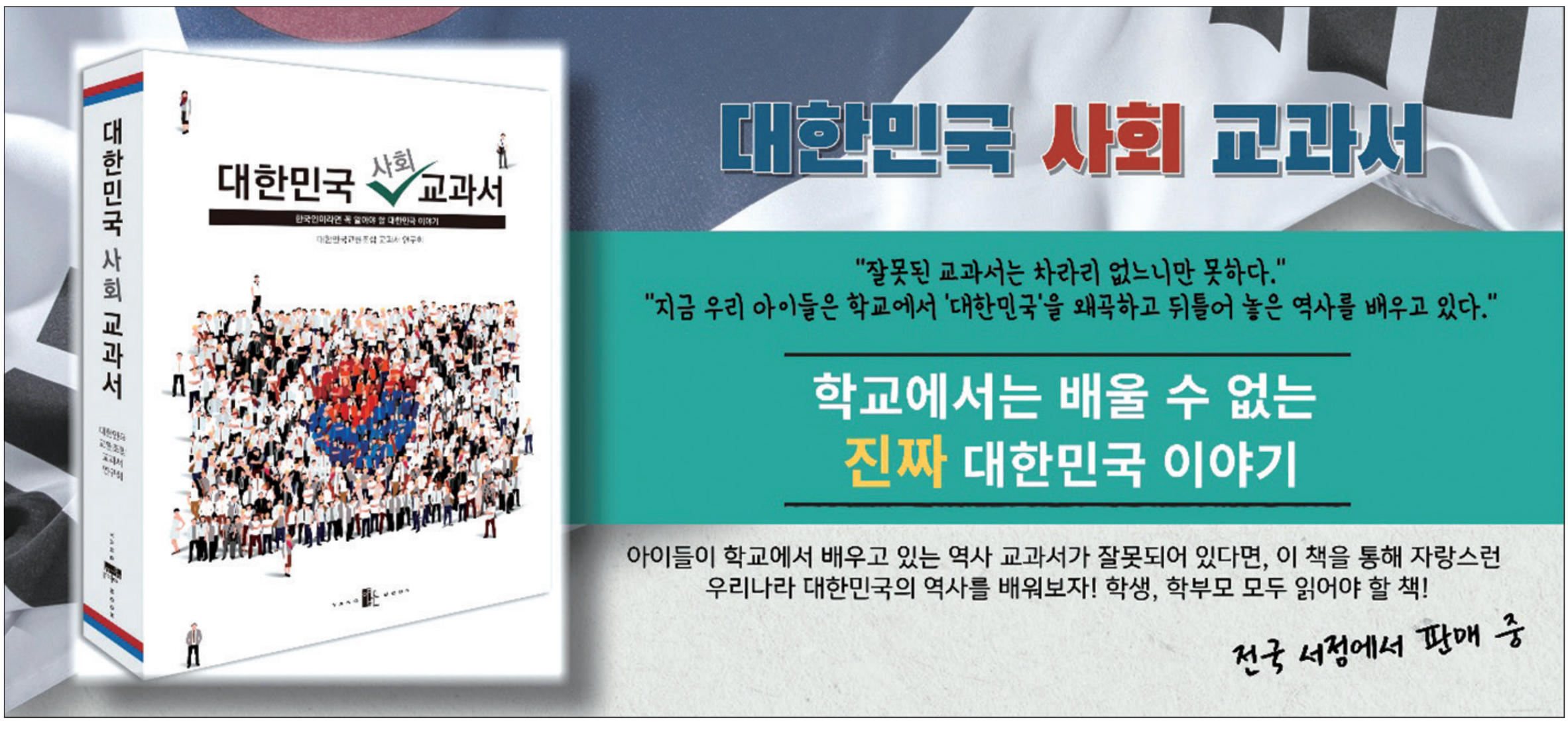
아울러 "지금은 대학 졸업해도 바로 취업이 되지 않고 약 1년이 걸린다. 과거에는 졸업 전에 4학년 2학기 때 공채 시험을 보고 거의 모든 학생이 졸업 전에 취업을 했다. 그런데 지금은 경력직을 선호한다"며 청년의 고충을 대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어느 청년은 김 후보 발언 내용 중 법인세 감면에 대해 질의했다.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 준 만큼 세수가 부족해지므로 청년의 세금 부담도 늘어날 것 같다는 취지의 질문이었다.

김 후보는 "법인세를 줄여주면 법인세 전체가 줄어든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저는 그만큼 법인 숫자도 늘어난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법인세를 감면한 만큼 새로운 법인이 생겨서 그만큼 세수를 채워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기업에 감세 등의 혜택을 주면 전체 정부 규모도 줄여 작은 정부로 운영하고 공무원 숫자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이유에 대해선 국회에서 예산 심사를 했던 공직 경험을 언급하며 "공공 부문은 누수가 많고 낭비가 심하다. 줄일 부분이 많다"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채를 늘린 기업에 혜택을 주면 국민이 세금을 더 부담하지 않겠나 이건 아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자세하게 계산도 해 드릴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경제의 침체기를 안정시킬 방안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김 후보는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제로(0%) 성장이다. 1%가 안 된다. 잠재 성장률도 1~2%밖에 안 된다"고 운을 뗀 뒤 "박정희·전두환 대통령 때는 계속 10% 가까이 성장했고 지금은 아주 저속·감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만평 화필살인(畵筆殺人)